

다구를 찾아서 18 라쿠다완

# 세상 단 하나밖에 없는 다완

일본의 다성(茶型)으로 추앙받는 센리큐(千利休, 1522~1591)는 사카이 이마이치에서 태어났다. 아명은 요시로(與四郎), 법명은 소에키(宗易)이며 64세 되던 1585년에 궁중으로부터 '리큐거사'라는 호를 하사받았다. 그는 생애를 통해 다케노 조오(武野紹鷗, 1502~1555)에게 배운 소박하고 차분함을 중시하는 와비차를 그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완성했다. 뿐만 아니라 세 명의 증손자는 다도의 지도자 가문 즉, 이에모토(家元)를 이취 현재 일본에도 유파(流派)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16세기의 사카이는 무역항으로 무기, 특히 유럽에서 수입된 조총을 취급하는 주요 상인이 모인 부유한 상업도시였다. 이런 까닭으로 사카이는 막부의 보호아래 전시(戰時)중이라도 도심에서는 전투가 벌어지지 않을 만큼 안전한 도시였다. 막대한 부(富)와 안정된 사회는 이름난 다인(茶人)을 배출하고 명물 다구(茶具)가 사카이가 모이게 한 배경이었다.

리큐는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 1534~1582)에게 발탁돼 자토(茶頭-다도전문가)로써 차를 가르치고 차회(茶會)를 담당했다. 1582년 혼노지의 변(本能寺の變)으로 노부나가 가 갑자기 죽자 이번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1537~1598)에게 발탁된다. 다도가 절대 권력을 더욱 빛나게 하는데 필요한 문화적 도구로 인정받던 사회적 풍조 때문에 리큐는 히데요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었다. 게다가 히데요시는 노부나가보다 명물 다구 수집에 더욱 열심이었고 수집한 것을 자랑하기 위한 차회를 자주 열었다. 이 시기에 히데요시는 권력 과사용으로 황금다실을 만들어 전쟁터에 가지고 가서 전시하기도 했다. 황금다실을 조립식으로 운반하기 쉽게 만들었다고 전해지고 있으나 실전(失傳)돼 현재에는 복제품이 MOA미술관에 전시돼 있다.

리큐가 완성한 다도는 다실(茶室), 다구(茶具), 행다법(行茶法), 미의식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다완(茶碗)의 이상적인 형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조선이나 중국에서 수입된 다완을 선택하는 특별한 안목을 바탕으로 일본의 장인으로 하여금 다완을 제작하게 했다. 이는 곧 라쿠 조지로(樂長次郎)와의 협력으로 만든 라쿠다완(樂茶碗)으로 나타난다. 라쿠 조지로의 경력은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1574년에 만들어진 기와에 '樂長次郎之'라고 새겨져 있는 것이 남아 있으며, 이 기와의 태토(胎土)나 유약의 성질이 조지

로의 다완과 매우 흡사하다. 이로 미뤄 투박한 기와의 흠이나 유약의 분위기가 리큐가 완성한 와비차의 미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양식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라쿠다완의 첫 번째 특징은 물레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빚어서 만드는 것으로 다완 바닥의 굽(高臺)까지 전체적으로 유약을 바르는 것을 꼽는다. 두 번째는 대부분 일정한 모양을 하고 있지 않으며 다완의 색도 적색과 흑색 두 가지 뿐이다. 세 번째는 매우 정적인 형태와 두텁게 바른 유약이다. 그리고 손으로 하나씩 만들었기 때문에 세상에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리큐는 라쿠다완을 통해서 와비차의 미의식을 표현하려 했다. 또한 이는 일본에서 다구로 만든 최초의 다완이었다고 할 수 있다.

1586년에 '소에키카타(宗易形)'라고 표기된 다완이 차회기록에 나타나는데 이것이 '이마이카다완(今焼茶碗-최근에 만든 다완)'이라고도 불리는 것을 보면 리큐의 지도에 따라 만든 새로운 형태의 다완이 주목받기 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다완은 조지로가 만든 원통형 모양에 윗부분을 안쪽으로 감싸 넣고 검은 유약을 충분히 바른 검정색 다완 즉 구로 라쿠다완(黒樂茶碗)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 구로라쿠다완은 16세기 모모야마시대(桃山時代)에 조지로가 만든 것으로 이름은 '슌칸(俊寛)'이다. 키카이 시마(鬼界ヶ島)에 유배돼 홀로 남겨진 슌칸 소즈(俊寛僧都)에 비유해 리큐가 이를 불었다고 전해진다. 일본의 중요문화재(重要文化財)로 보호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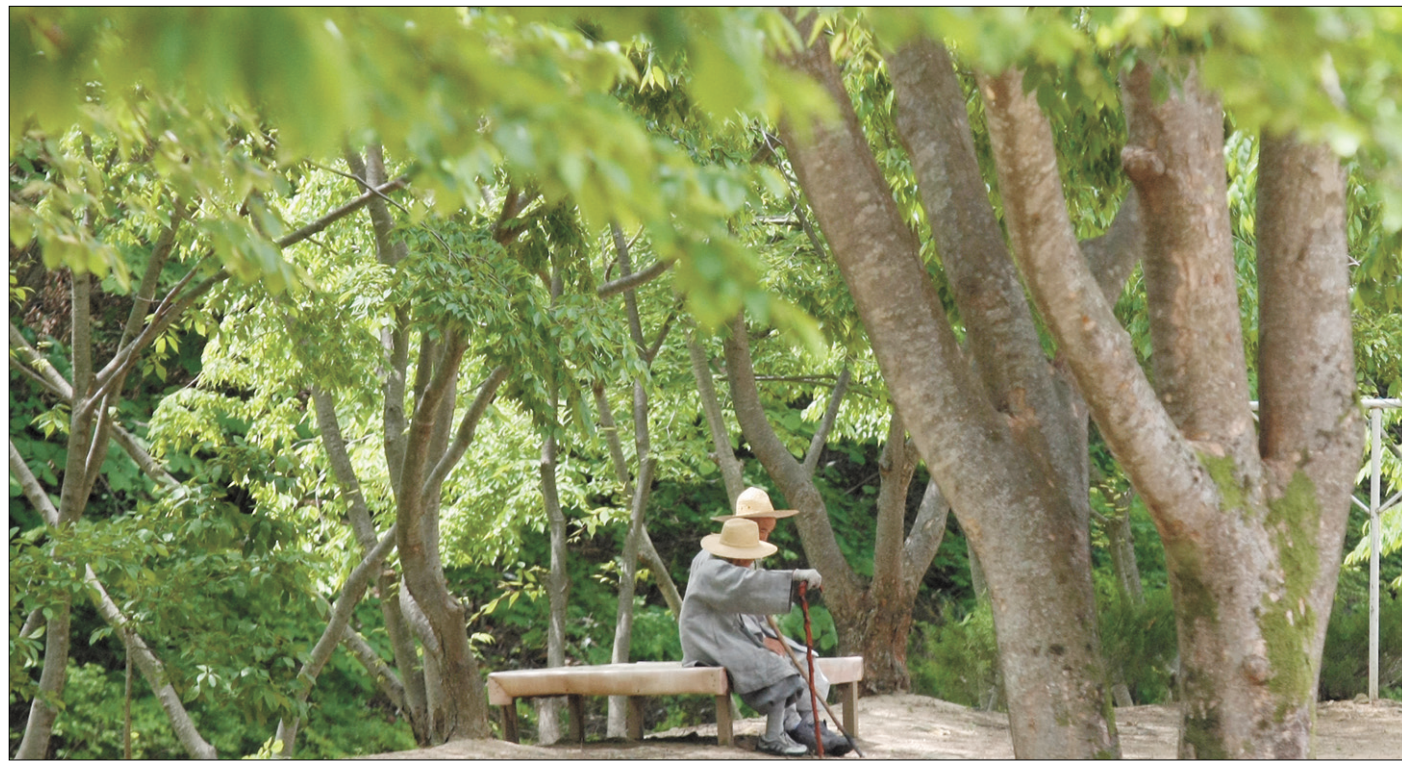


로라쿠다완(樂樂茶碗), 모모야마시대(桃山時代) 조지로작(長次郎作), 일본 삼정문고박물관(三井文庫別館) 소장, 높이 7.9cm, 구경 11.3cm, 고대지름 4.8cm.

백기란 bdaol@hanmail.net 동아사이치문화연구소 연구원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건이야기

39 봉암사에서



그 때, 간절히 부처님처럼 살고 싶은 스님들이 있었다. 그래서 스님들은 함께 모여 원을 세웠다. '부처님 법대로 살자'고 부처님처럼 산다는 것이 머리를 깎고 법명을 받는 것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었다.

얼마 전, 하안거 하루 전 날 문경 봉암사를 찾았다. 봉암사는 도량에 들어서는 순간, 아니 일주문을 바라보는 순간 다른 산문과는 다른 느낌을 받는

다. 나무 한 그루도 부처님 법대로 서 있는 듯하고, 새들도 그냥 날아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멀리 회양산에 하안 동계구름도 그렇게 걸려 있었다.

길을 걷던 스님 두 분이 평상에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햇살은 밀짚모자 위에 그렇게 떨어지고, 바람은 그렇게 나뭇가지를 흔들고 지나가고 있었다.

## 그림으로 본 극락세계

### 제1도 굽고독원도

<불설아미타경>에 나오는 이 삽화는 경을 설한 장소인 굽고독원(給孤獨園, 기원정사)의 전경을 묘사한 것이다. 전각은 화면의 오른쪽에 이층 누각 모습으로 서있는데 내부에서부터 여러 갈래의 빛과 향기가 퍼져 나오고 있으며 전각은 구름에 쌓여 장엄된 모습으로 판각돼 있다.

불경 중에는 경의 내용을 압축해 이미지를 변화시킨 변상도를 권수도에 표현하거나 삽화 형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불경의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해 경을 읽는 신자들의 이해를 도와 깨달음의 세계로 이끌기 위한 방편이다.

인간이 유한적인 생로병사의 세계를 벗어나 영원의 세계인 극락세계에 가고자하는 믿음은 예나 지금이나 모든 이들의 바람이다. 그러나 불자들이 막연히 극락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화 돼있는 극락세계의 삽화를 통해 사후세계에 대한 확신에 찬 믿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이미지를 통한 현대 표교의 새로운 장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 스물다섯 장면의 그림으로 판각돼 있는 <아미타경>의 삽화를 활용해 극락으로의 여

행을 시작해 보고자 한다.

<아미타경>은 <무량수경> <관무량수경>과 함께 정토삼부경을 이루는 정토사상의 근본 경전이다. <무량수경>과 범명(梵名)으로 동일해 <무량수경>을 대경으로 <아미타경>을 소경이라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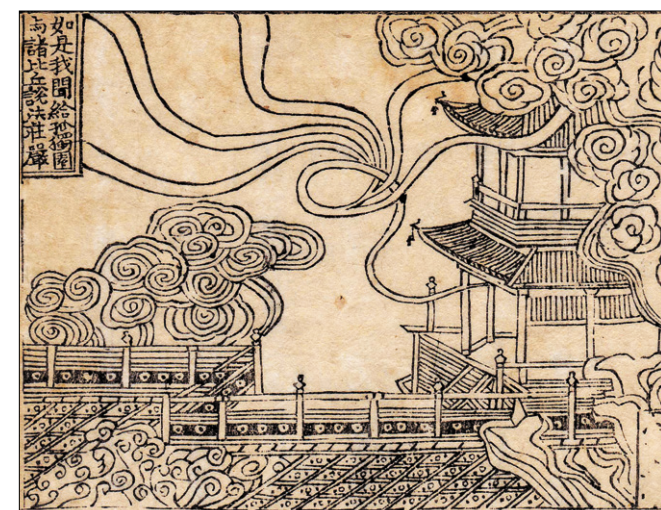
아미타불은 극락세계를 주재하는 부처님이며, 무한한 수명과 광명의 덕상을 지니고 있어, 중생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 아미타불의 명호를 진실 되게 염불하면 아미타부처님이 보내주시는 반야용선에 올라 극락왕생한다는 가르침이 담겨 있다.

한역은 서기 402년경 요진의 구마라집에 의해 이뤄졌다. 조선시대에는 <아미타경>이 정토경 중에 가장 많이 판각됐으며, 판본의 형식은 경전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삽화로 변화시킨 변상을 글 위에 배치시키는 상도하문식으로 만들어진 판본이 가장 많다. 또한 변상도를 경전의 맨 앞에 배치하는 권수형식도 있다.

상도하문식으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판본으로는 충주 덕주사판본(1572년), 해남 금강사본(1575년), 담양

용천사본(1577년), 순천 송강사본(1648년) 등이 있으며, 이들 중 용천사본을 제외하고는 덕주사본을 복각한 판본이다. 치악산 명주사 고판화박물관에는 충주 덕주사판본(1572년), 담양 용천사본(1577년), 순천 송강사본(1648년), 삼각산 내원암 판본(1853년)이 있으며, 충주 덕주사판본(1572년), 담양 용천사본(1577년)은 강원도 유형문화재 152·153호로 지정돼 보호되고 있다.

신학 스님(명주사 고판화박물관 관장)



고판화박물관 소장 <불설아미타경> 중 제1도 굽고독원도(給孤獨園圖), 덕주사판 1572년 간행, 반각(半郭) 28.2×21.0cm

# 젊은 날의 깨달음 하버드에서의 출가 그 후 10년

급상승 베스트 셀러

인터파크 베스트셀러 신규진입 2위  
알라딘 종교분야 베스트 3위  
영풍문고 오늘의 도서 선정



KBS 1TV 「아침마당」 화요초대석 주인공  
미국 최초 한국인 스님교수가 묻다.  
“하버드 나오면 뭐가 좋은데?”

독립 전문서평단의 뜨거운 찬사!!!

친필일필적일 수도 있는 구도자의 책들에 색다른 바람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책이다. [알라딘: 러브캣 ★★★★★]  
정말 생각지도 못한 멋진 책이다. 하버드에 가기 위한 열공에 대한 얘기들로 가득할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알찬 얘기들로 가득차 있어서 오랜만에 마음 따뜻하게 읽을 수 있었다. [인터파크: 너티니사냥호 ★★★★★]  
정말 시간이 아깝지 않은, 읽고도 또 읽고싶은, 누군가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곱씹게 되는 책을 읽었다. [인터넷 교보문고: quartz55 ★★★★★]  
나를 돌아보고 나를 성찰케 하며 앞으로의 나를 이끌 힘이 되어주는 디딤돌 역할과도 같은 그런 글들이었다. [예스24: parkah ★★★★★]

클리어마인드 전화\_02-2198-5151 정가 12,000원 저자 헤민 스님

\* 전국 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NAVER 헤민스님